



제13회 광주비엔날레 구성·전시장소 발표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데프네 아야스와 나타샤 진발라 예술감독이 13일 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전시 구성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 담론 작품 구현

국립광주박물관·광주극장 전시장 활용
본전시관 1층 첫 무료개방 전시공간 변화
온라인 저널 발행 등 출판, 퍼블릭 프로도

코로나 19 사태로 행사가 내년 2월로 미뤄진 제13회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코로나 사태에서 파생된 다양한 담론들을 다룬 작품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관람객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엔날레 역사상 처음으로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 1전시실을 무료로 개방, 전시장을 찾는 전 세계인들의 '소통'의 장으로 만드는 등 전시 공간 구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김선정)는 13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3회 광주비엔날레(2021년 2월 26일~5월9일) 구성과 전시 장소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정 비엔날레 대표를 비롯해 스리랑카와 베를린에 머물고 있는 데프네 아야스와 나타샤 진발라 예술감독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전시와 퍼블릭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 출판물 등 온·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순환되는 현대미술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과 실험정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코로나와 관련된 담론들이 자연스럽게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공동체와 네트워크의 중요성, 감각, 소외의 문제, 애도, 이동의 제한 등 다양한 주제들이 불거졌고, 사회문제에 민감한 예술가들이 자연스레 작품으로 풀어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타샤 진발라 감독은 '변신의 도구, 사람의 고립' 등으로 상징되는 '마스크'를 소재로 작업하게 될 참여작가의 작업을 예로 들며 "우리도 작가들의 작품을 금금 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세계 공동체가 직면한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소속감, 우정, 저항,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소통들을

지구촌 곳곳에서 목격했다"며 "이러한 지구상의 움직임들은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추구하는 방향인 예술적 실천이자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지역 및 국가 간 연대"라고 밝혔다.

또 1전시실을 개방하는 것과 관련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고 할머니와 손주 등 세대를 아우르고 모두를 환영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시 장소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이외에 국립광주박물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광주극장 등으로 광주의 근대 역사를 담은 공간이 활용되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결 지점들을 시각화할 예정이다.

개최지 광주의 정체성을 반영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유산과 계보, 공동체적 참여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매체로 시각화·담론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예술 감독과 참여 작가들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오월어머니집, 광주트라우마센터 등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장소 등을 방문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광주 정신을 녹여내기 위한 방식들을 모색해왔다.

이번 비엔날레는 웹사이트(www.13thgwangjubienale.org)를 통해 국·영문 온라인 저널 '떠오르는 마음(Minds Rising)'을 발행한다. 예술 및 문학, 과학, 이론 등의 세 분야로 구성되며 첫 번째 호는 광주 여성사, 토착 고고학,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 알고리즘적 젠더 폭력 등의 주제를 다룬다. 온라인 저널을 통해 발행되는 콘텐츠는 전시 기록과 함께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도록에 수록된다.

또한 최근 몇 년 새 이슈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페미니즘에 집중한 출판물 '뼈보다 단단한(Stronger than Bone)'도 발행 예정이다. 영문판은 베를린에 거주하는 두 출판사 아카이브 북스와 공동 편찬하고, 국문판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발행하는 정론지 '눈(NOON)' 제8호로 발간된다.

그밖에 퍼블릭 프로그램 '라이브 오르간(Live Organ)'은 이번 비엔날레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들을 탐색한다. 개막에 맞춰 두 차례 퍼블릭 포럼과 새롭게 커미션한 퍼포먼스로 구성되는 행사다. /김미은 기자 mekim@

전남대 국어문화원, 623돌 '세종 나신 날' 기념 행사

15일~31일, 온라인 시민참여

15일 623돌 세종대왕 탄신을 맞아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원장 손희하·국어국문학과 교수)이 '2020 세종 나신 날' 기념 행사를 연다.

작년까지는 전남대 캠퍼스 등 몇 군데에 세종 업적 관련 책자 등을 전시하고, 올바른 한글 사용에 대한 체험 활동과 글쓰기 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 행사가 불가능해 가상 공간을 활용해 치른다. 특히 올해는 15일부터 31일까지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 내용은 '순우리말 이름 소개하기', '우리말을 살려 쓴 가

게 이름 칭찬 제보하기', '생활 주변 언어 개선 제보하기' 등이 다. '순우리말 이름 소개하기'는 순우리말로 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름의 뜻을 풀어 설명하고 소개하면 된다. '우리말을 살려 쓴 가계 이름 칭찬 제보하기'는 아름답고 고운 우리말을 사용한 가계의 간판 사진과 소개하게 된 이유 등을, '생활 주변 언어 개선 제보하기'는 간판이나 광고물, 현수막 등 생활 주변에서 발견한 공공 언어 사용 실태를 사진과 함께 문제점, 개선 건의 등을 제보하는 것이다.

참여방법은 전남대국어문화원 누리집 '세종 대왕 나신 날 기념 행사' 부분에 올리면 된다. 우수 응모작은 기념품과 함께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skypark@

5·18 40주년 문화로 만나다

스크린에 일렁이는 진실의 물결

<7> ACC '5·18 영화주간'

15일~24일, '꽃잎' 등 장·단편 18편 상영
中·日 제작 작품 첫 공개 ...관객과의 대화

80년 5월 발생한 국가폭력과 이에 맞선 시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비롯해 일본·중국 감독의 시선에서 바라본 80년 5월 광주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이하 ACC)은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문화정보원 극장에서 특별 영상전 '5·18 영화주간'을 개최한다. 한국영상자료원과 손잡고 장·단편 영화 18편을 상영하며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준비했다.

장편 작품으로는 '오! 꿈의 나라'(감독 이은·장동홍·장윤현), '부활의 노래'(감독 이정국), '꽃잎'(감독 장선우), '박하사탕'(감독 이창동) 등 9편이 스크린에 오른다.

'오! 꿈의 나라'는 광주항쟁 중 서울 동두천으로 피신을 간 대학생의 시선으로 5·18을 풀어내며 '부활의 노래'는 유산정권 시절, 사회 정의 실현과 민주화를 꿈꾸던 젊은이들의 항쟁을 그렸다. 본격 상업영화로서 광주를 그린 '꽃잎'은 진압군의 첫 발포가 있었던 80년 5월21일의 상황을 담아냈고, '박하사탕'은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렸다.

단편영화 9편도 관객을 찾아간다. 일본 5·18 관련 다큐멘터리 '자유광주', '광주발굴 3부작'을 한국영상자료원의 디지털화 작업과 ACC 시네마테크의 자막 지원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한다. 오카무라 준 감독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판화보 표현한 작가 도미야마 다에코의 이야기를 '광주발굴 3부작'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선보이며 일본과학영상관이 제작한 '자유광주'는 일본 게도사가 제작한 5·18 당시의 보도영상을 토대로, 시바 마쓰요시의 시와 도미야마 다에코의 판화를 엮은 작품이다. '자유광주' 상영 후에는 '자유광주와 역사공동체'를 주제로 정근식 서



'박하사탕'

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강연이 이어진다.

이밖에 제5공화국 당시 관제 축제 현장을 비판적으로 담아낸 서울대 영화동아리 알라성의 '국풍', ACC 미디어월과 옛 전남도청 건물의 의미를 되짚어 본 강상우 감독의 'A Wall', 옛 국군병원을 배경으로 5·18 이후의 잔재들을 시각화한 중국 감독 보왕의 '속삭이는 잔해와 소리 없이 떨어지는 잎들' 등도 만날 수 있다. 또 '오월상상', '꽃피는 철길', '육상자국', '봄날' 등도 상영된다.

5·18을 최초로 필름으로 담아낸 김태영 감독의 16mm 단편영화 '칸트씨의 발표회', '황무지'도 상영한다. 특히 당시 정권에 필름이 압수돼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황무지'는 김 감독이 소장한 테이프를 디지털화해 이번 기획전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

작품 상연이 끝난 뒤 강연과 감독의 무대 인사도 진행된다. 강상우·김인수·장영주·이조훈·이정국·김태영 감독 등이 영화 속 이야기를 들려주며 ACC 유튜브 채널로도 만날 수 있다.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회당 40명으로 제한한 객석제를 시행한다. 무료 관람.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부활'

광주문화예술회관, 5·18 40주년 기념 무대...광주시향 정기연주회·국악상설 특별공연

'광주여 영원히' '아! 금남로'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이 제351회 정기연주회 '광주여 영원히'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무관중 공연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광주시향 유튜브 채널 'GSO TV'에서 18일부터 27일까지 무제한으로 감상할 수 있다. 또 20일 오후 5시 30분 광주 MBC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레퍼토리는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죽음과 변용',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플루트 협주곡', 시벨리우스 '교향곡 7번' 등이다.

이날 공연 지휘를 맡은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윌슨 응은 베를린 예술대 등에서 지휘를 공부했으며 2017년 제8회 게오르그 슐터 국제 지휘 공로에서 입상했다. 2015년 프라하 봄 국제 음악 페스티벌 콩쿠르 우승 등을 차지한 김유빈은 2016년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최연소 플루트 수석으로 임명됐으며, 연주실황은 27일까지 유튜브 채널로 공유한 뒤 비공개로 전환된다.

광주국악상설특별공연도 펼쳐진다. 공연은 18일 오후 7시 KBC 광주방송을 통해 만날 수 있으며 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장극단, 시립합창단 등 시립예술단체가 함께 참여해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공연은 영화 '꽃잎'의 OST '아! 금남로'로 시작한다. 이 곡은 80년 5월을 겪은 한 소녀의 슬픔과 한을 담아낸 곡으로 5·18 당시 광주의 아픔을 국악 선율로 전한다. 이어 산자와 죽은자의 헤아릴 수 밖에 없는 인연을 춤으로 표현한 '이연', 광주의 혼이 한 국민의 혼이 되어 인류의 평화를 노래하는 황호준 작곡가의 '낮이아 낮이로다'가 무대에 올려진다.

마지막 무대는 광주의 아픔을 뒤로하고 희망찬 미래와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관현악 '도약'과 백제가요 정음사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정음사'로 마무리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



윌슨 응 김유빈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